

호주 생태관광 체험기

I. 시작하며

최근 들어 대중관광이 지니는 폐해와 역기능이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자원봉사관광 등과 같은 대안 관광이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관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와 주민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재투자함으로써 보전과 지역경제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과 구별된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생태계 친화적이며, 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관광 상품 개발을 지향하고, 관(官)이 아닌 주민과 NGO가 주도하는 형태를 띤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이 보전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 또한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미처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태관광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체 관광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5%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미국야생동물보호국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200억 불이상의 규모를 지닌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높아진 생활수준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높아짐에 따라 생태관광의 잠재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진행된 '한국형생태관광 10선 선정 사업'과 '생태관광 인증제도'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생태관광에 대한 참여율은 아직은 낮고 생태관광 시장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아직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고 관련된 법규 및 지원책마저 미비한 실정이다. 제10차 람사르총회(COP10)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순천만이 생태관광지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현재 명품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10여개 지자체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추진 방향과 자원의 상품화

방안에 대해 레퍼런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태관광을 통해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하여 생태관광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방안 그리고 자연자원의 상품화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 내에서 동물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정리하였다.

II. 방문 지역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1. 케언즈(CAIRNS)

케언즈(Cairns)는 퀸즐랜드 주의 북쪽에 위치한 관광도시이다. 인구 147,000명, 면적 488km²의 작은 도시이지만 인근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보초(Great Barrier Reef)와 열대우림이 위치하고 있어 이색적인 숲과 아름다운 바다를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백여 개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로 인해 연간 60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이중 28억불은 호주 국내 관광객에 의한 수익이라고 한다. 케언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 군락지인 대보초로의 크루즈와 열대우림 체험, 쿠란다(Kuranda) 민속마을 관광, 열기구 비행, 악어농장 체험, 와인마을 체험 등이 있다. 이들 중 대보초 크루즈와 열대우림과 쿠란다 마을을 체험하였다.

1) 대보초 크루즈 (Great Barrier Reef Cruisers)

리프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크루즈 회사 마다 소유한 산호초군락으로 이동 후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1일 관광 상품으로 썬러버, 오션스 피릿 등 여러 개의 회사가 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썬러버(sunlover leef cruisers)의 경우 리프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육지에서 40km 떨어진 무어리프(moore reef) 이동하여 정박 후 산호초 군락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 상품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잠수정과 바닥 유리배, 스노클링, 물고기 먹이쇼, 뷔페식 점심 등이 전체 크루즈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체험 스쿠버다이빙과 씨워크(sea walker)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등은 선택관광으로 별도 추가요금을 요하였다.

요금제는 성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 등 3가지로 구분되며 GTS(상품세), 환경세 그리고 항구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호텔 숙박과 연계한 패키지 뿐 만 아니라 열대 우림과 쿠란다 마을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2일 관광 상품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주변에 함께한 관광객 대부분이 이들 연계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으로 케언즈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오전 9시 15분까지 체크인 후 10시에 출발하여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오는 전체 7시간 30분 여정이었지만 이동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 산호군락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바닥 유리배와 반잠수정의 경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2번씩 운행하고 있었으며 체험 다이빙은 개인별로 주어진 시간에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다. 스노클링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 없이 정해진 공간 내에서 임의대로 즐길 수 있었다. 해양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산호위에 서거나 걷는 것과 해양 생물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해양 생물 체험용 수족관을 비치하여 직접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열대 산호 속 다양한 물고기를 보고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닌다는 흥미로운 체험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몇 가지 아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산호 군락에 머무는 4시간 동안 점심 식사와 체험 다이빙, 반잠수정 체험과 스노클링은 체험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또한 산호 보호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찾은 관계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산호 군락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한정된 스노클링 장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지만 세척없이 그대로 다음 사람이 사용해야함으로 이로 인해 비위생적인 관리가 주는 불쾌감이었다. 해양생물에 대한 강의가 있기는 했지만 터미널과 산호군락 간 긴 이동시간 동안 지루함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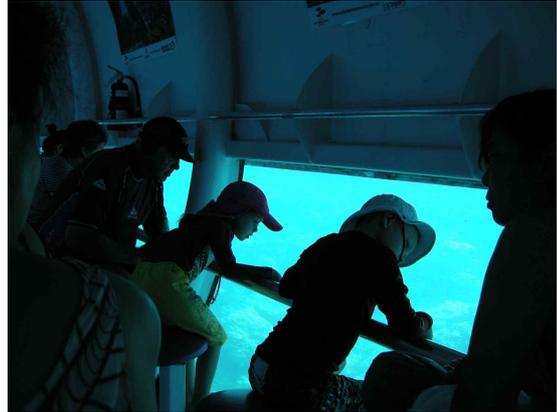
썬러버 크루즈에서 운항 중인 쾌속선



산호군락에 위치한 해양 테라스



선택 관광 중 하나인 체험 다이빙
(사진 : 썬러버 크루즈 홈페이지 인용)



반잠수정 내부 전경



물고기와 함께 하는 스노우클링



해양 생물 체험용 수족관

2) 쿠란다 1일 관광

쿠란다 1일 관광(DAY TOUR)은 쿠란다 민속마을 방문, 열대우림 체험, 쿠란다 기차, 스카이레일, 야생동물원 등 다양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쿠란다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관광기차와 스카이레일(Skyrail), 산간 도로를 자동차로 달려 도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으며 많은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스카이레일과 관광기차 두 가지를 병행 이용하고 있었다. 1일 관광의 경우 케언즈 내 숙소에서 직접 픽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숙소까지 돌아오는 하루 여정이다. 1일 관광을 주선하는 여러 회사가 있으며 운전사가 차량 운행 뿐 만 아니라 손님들 체크인 확인 및 가이드 역할까지 하였다. 우선 케언즈의 곳곳에 흩어진 숙소를 돌며 예약자를 모두 태운 후 8시 20분 경 프레쉬워터 역에 승객을 하차 시킨다. 손님들이 쿠란다 관광기차를 이용하여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미리 대기 후 승객을 다시 태우고 쿠란다 마을 까지 안내하고 쿠란다 마을 체험과 점심식사, 열대우림 체험을 마치게 되면 스카이레일 역까지 승객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스카이레일을 토

해 하산하는 손님을 종착역에서 태워 숙소까지 안내하는 전 일정을 운전자 1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오후 5시 40분에 숙소에 도착하는 1일 관광 상품이었다.

(1) 쿠란다 관광기차

지금의 관광기차는 쿠란다 마을의 광물 채취와 목재 생산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1887년에 착공하여 1891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전체 운행 길이는 75.1km 이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327m의 높이를 오른다. 프레쉬워터 역(freshwater station)을 출발하여 도착역인 쿠란다 역 까지 총 1시간 45분이 소요되며 15개의 굴과 37개의 다리 그리고 98번 급회전한다. 광업과 임업에 대한 채산성이 줄어들자 1930년대부터 관광열차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승객은 모두 관광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프레쉬워터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기차 내부 모습



다리를 지나는 기차



종착역인 쿤두역



바런폭포를 감상하기 위해 정차 중인 기차



바런폭포 주변 협곡

(2) 쿠란다 마을

쿠란다 마을은 케언즈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호주대륙의 원주민 중 하나인 차푸카이(Tjapukai) 족이 사는 마을이다. 약 1만여년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유럽인들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개척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약 6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지역과 차푸카이족의 음악과 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쿠란다 마을에는 전통공예품을 파는 시장과 기념품점들과 함께 새공원, 코알라공원, 야생동물원, 나비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쿠란다 마을에서는 창던지기와 전통악기를 관람하며 부메랑던지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캥거루 춤과 같은 전통 춤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



차푸카이족의 창던지기 시범



차푸카이족의 전통춤 공연

(3) 열대우림체험

쿠란다 열대우림지는 1988년에 'Wet Tropics of Queensland World Heritage'라는 공식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되었다고 한다. 면적은 90만ha로 호주 전체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3000여종의 가까운 식물과 함께 나무캥거루, 화식조 등 다

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열대우림체험은 수륙양용차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가이드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정해진 코스를 정차와 이동을 반복하며 열대우림 내 다양한 생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탐방객이 직접 도보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수륙양용차 또한 정해진 코스만을 돌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더라도 이들에 의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열대우림 내 습지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차



열대우림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와 탐방객

(4) 스카이레일(Sky Rail)

스카이레일은 그린글로브(Green Globe)가 인증한 세계 최초의 관광 상품이며 호주 내에서도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상품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경영인증(ISO14001)도 획득했다고 한다. 소득의 분배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여 스카이레일 열대우림재단(Skyrail rainforest foundation)을 설립하고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스카이레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길이는 7.5km에 달하며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의 운행시간 또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스카이레일은 바린협곡국립공원 내의 광활한 원시 자연열대우림의 상공을 지나며 다양한 식생을 목격할 수 있다. 1995년에 완공하였으며 1여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되었으며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모든 철탑은 헬기로 공수하였다고 한다. 가장 긴 철탑의 높이는 40m에 달한다고 한다. 승강기는 총 114대가 운행되며 중간에 레드피크역(red peak)과 바린폭포역(barron fall) 두 곳의 정거장에서 체류할 수 있다. 레드피크역의 경우 해발 545m에 위치하며 역 주변으로 열대우림을 거닐며 체험할 수 있는 175m 길이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레인저들의 생태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바린폭포역의 경우 해설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열대우림에 관한 전시와 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정해진 스케줄 따라 진행되는 생태해설가의 설명도 열대우림 내에서 직접들을 수 있었다. 탐방로와 함께 바린협곡과 폭포와 같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국립공원과 자연유산 지역에 초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탐방객에 환경에 대해 폭넓은 체험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보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면을 통해 지금은 최고의 생태관광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열대우림 상공을 지나는 케이블카



열대우림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레인저

2. 모턴섬(Moreton Island)

퀸즐랜드 주의 수도인 브리즈번에서 북동쪽으로 58km 위치한 모래섬으로 면적은 170km²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섬으로 섬의 전체의 9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섬 주변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많은 고래가 찾아와 서식하는 관계로 포경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실제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총 6,277마리의 혹등고래가 포획되었다고 한다. 포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고래관찰관광과 캠핑, 사막사파리 투어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며 특히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부 요트를 소유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섬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 섬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탕갈루마 리조트에서 투숙객이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모턴섬을 가기 위해서는 브리즈번의 핀켄바(Pinkenba)항에서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탕갈루마리조트는 생태체험과 휴양 그리고 액티비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다. 프로그램은 주간과 야간 그리고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사막사파리와 다양한 해양스포츠, 쿼드바이크, 헬리콥터 투어 외에 돌고래먹이주기체험, 고래관찰크루즈, 듀우공관찰크루즈, 양간생태탐험(night spotlight eco walk), 해양생물크루즈(marine discovery cruise), 어린이를 위한 해양생물 강의(eco kids), 물고기 먹이주기(fishing feeding), 펠리칸먹이주기, 난파선 스노우클링, 모턴섬에 사는 희귀조류인 쿠카부라 먹이주기(kookaburra feeding)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어, 일어, 한국어, 프

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안내책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도 상주하고 있었다.



항구에서 페리를 기다리는 관광객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난파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고 보관하던 창고



섬의 곳곳에 위치한 자연보호용 안내판



펠리칸 먹이 주기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

3. 필립섬 (Philip Island)

빅토리아주의 멜번에서 남동쪽으로 140km떨어진 섬으로 전체 면적은 10,000ha이다. 필립섬은 자연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펭귄 프레이드와 이와 함께 바다표범 군락, 코알라 보전센터 그리고 야생동물공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즐기기위해 해마다 35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는다고 한다. 특히 펭귄 프레이드의 경우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야생동물과 관련한 상품으로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다.

펭귄 프레이드는 필립섬의 서쪽 끝지역에서 번식하는 펭귄무리들이 낮시간 동안 먹이를 먹은 후 저녁 해질녘에 해안가에 오른 후 모래사장을 건너 언덕에 파놓은 굴 속의 둥지로 돌아가는 수백마리의 펭귄들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하는 상품으로 '프레이드'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끊임없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레이드는 약 50분 동안 계속되며 탐방객들은 해안가에 위치한 관람석과 언덕에 자리잡은 데크 등 야외에서 펭귄들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방문자센터와 해변의 관람석 그리고 관찰데크, 주차장 외 시설물은 간소화 하였으며 정해진 경로 이외에는 대부분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특히 방문자 센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와 레인저들이 통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때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펭귄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뉴질랜드 샌드플라이(Sandfly)와는 다르게 이 지역은 '필립섬 자연공원 관리위원회'에 의해 서식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이뤄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자치기관으로서 펭귄 개체군에 대한 연구활동 뿐 만 아니라 교육 및 보호활동도 실시하고 있었다.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필립섬 야생동물의 보전에 이용된다고 한다.



해변에 위치한 관람석



관람석 내 탐방객



펭귄 서식지 주변에 조성된 탐방로



자연공원 곳곳에 위치한 펭귄 굴



코알라를 관찰하는 탐방객



코알라 보전센터 전경과 휴식중인 코알라

III. 마치며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보전과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지역을 체험하고 난 뒤 느낀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탐방객 만족도 증가를 위한 탐방객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태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1. 서식지 관리 시스템 마련

멜번의 펭귄 서식지는 필립섬 자연공원 관리위원회(PINPBM)가 시행하는 엄격한 5개년 관리 프로그램으로 잘 보호되고 있었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펭귄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익도 크게 향상되었다. 결국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성공하였다. 수입 또한 섬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2006년부터 펭귄 관련 기념상품을 판매하면서 더욱 수입이 증가했다. 이 수입들은 모두 탐방로 수리, 4000석 규모의 관람석 설치 등 공원 관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반면 뉴질랜드의 샌드

플라이(Sandfly) 만은 2000년 부터두 개의 기관이 펭귄 관광을 시작하였으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자 뉴질랜드 보호국에서는 관광객들이 펭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20,000명을 넘는 관광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도 없었고 서식지 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관광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펭귄들은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말았다.

이 두가지 사례를 볼 때 엄격한 관리시스템만이 생태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체계 확립

방문한 지역 대부분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거나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에 속해 있었다. 이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처럼 소비자에게는 높은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사례에 의하면 국제적 인증과도 같은 세계유산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탐방객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공원의 지정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법체제 혹은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며 재정 지원 또한 용이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관리체계 또한 획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지의 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경우도 보호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 303명이었던 외국 관광객이 현재는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국내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8.7억 명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중국의 동부 인구 밀집 지역 주변의 보호관리 지역의 경우 관리제도 및 계획의 부재와 함께 8개의 각기 다른 기관이 이들 지역을 관리할 뿐 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자원의 이용과 약탈에만 치중해 오다 중국엔 생태관광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보더라도 관리체계의 확립 또한 중요하고 할 수 있다.